

니-최 復興의 現代的 意義 (七)

安浩相

四, 超人

따-윈[다윈]의 進化論은 이미 種의 起源과 人間의 起源을 疑心 업시 밝혔
다 할지라도 그가 人間의 □□는 少毫도 關心한 바를 찾을 수가 없다. 따-윈
은 人間의 由來를 研究하였으나 니-최는 人間의 □□를 究明하였으나 니-최
는 人間의 □□를 究明하였다. 그럼으로 니-최는 人間이 걸어온 過去를 못
지 안코 오직 아프로 거러갈 未來를 스사로 答하였다. 따윈은 現今에 存在한
諸生物의 質과 量의 千差萬別은 數와 程度를 可히 表할 수 업스나, 그것의
根本 由來는 오직 同質同量인 一種으로부터 發展해 온 것이라 主張하는 同
시에 다시 生物界의 發達過程과 狀態를 한 尖塔形으로써 表現하였다. 따윈-
의 人間發達이 尖塔의 尖點은 過去 數萬年 前에 存在하였든 것임에 틀림업
다. 그러나 萬一 이 尖塔形을 니-최의 人間 發達觀에 引用할 때는 따-윈의
主張과 全혀 反對가 아닐 수 업스니, 그는 말하기를 人間의 發展은 決코 指
南指北으로 目的 업시 달아나는 것이 아니며, 또는 異量異質로서 一致 업시
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無窮時의 系列의 一點에 □在한 一個 目的만을
□□하고 行□할 뿐이다. 此 唯一의 目的은 무엇인가함에 又是 「超人」이라는
簡單한 文句로 對答하였스니, 그의 超人이란 무엇을 云謂함일가? 이를 解說
하기 前에 먼저 그의 著 차라투스트라에 記錄된 몇마디를 引用하기로 한다
면 「超人」은 人間으로부터 비로소 自己를 發達시켜야만 될 것이다 하고, 다
시 차라투스트라는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超人을 敎示하리라. 人生이란
當然히 克服하여진 그것이다. 너희들은 人生을 克服하기 爲하여 무엇을 하였
는가? 萬物은 지금까지 우리 人間에게 人間 自己를 超越한 要求들을 作成하
여 노았다. 古代에 너희들은 원숭이였스며, 버러지로부터 人生의 □□까지 길
을 걸어온 무리들이다.」

「人生은 禽獸와 超人 사이에 매여 잇는 한 □의 줄(繩)을 意味함이다. 그리
하여 人生은 眞正한 意味에서 自身이 目的됨이 아니라 다만 한아의 途程이
며 手段에 不過한 것이다. 人生은 一者로부터 他者에 가는 「다리」(橋樑)로서

거기엔 安定과 平和가 □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不安과 □에서 沈潛하고 있는 것이다. 人生은 「줄 우에 춤추는 者」이니, 人生은 바람가지(風枝)의 鳥涉의 運命과 가를 것이다.

人生은 萬生의 으뜸인 同時에 目的이요, 超人은 人生의 으뜸이며 目的인 것이니, 人生은 禽獸로부터 自然이 發展하여 왔스나 人生은 超人의 境地에 到達함에는 自然的으로 發展될 수 없다. 超人이란 目的을 達成하려면 人生은 自己를 克服하지 안하면 아니 될 것이다. 克服이란 自然的 □□로 될 수 없고 오직 人生 自體의 熱에서 發하는 健全한 鬪爭으로서만 可能할 것이다. 人生이 本性으로 所有하고 있는 永遠한 鬪爭能力은 비로소 超人을 向하여 前進할 수 있는 □成를 發할 수 있는 同時 超人에 達할 수 있는 重要 理由가 되지 아닐 수 없다. 「超人이란」 卽 우리 人生이 바라보고 나가는 目的은 우리 限界에 容許되는 一定한 時間 內에 存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期必할 수 없는 久□한 時間 內에 潛在하였스며, 여지□하여 人生의 鬪爭은 永遠으로부터 永遠으로 向하여 前進할 뿐이다. 「그럼으로 차라투스트라는 「人生아너이들은 期必코 무엇을 克服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끝)

「□□」

때는 一九二八年 어느 가을날이었다. 筆者는 當時 獨逸 예니大學 在學時였섯든 바, 마침 그곳 오이켄 哲學者의 未亡人과 가티 바이메르[바이마르]市에 있는 니-최 文獻保存所를 求景하러 간 일이 잇섯는데, 그 保存所는 當時 바이메르 政□에서 管理하며 그 責任者로서는 니-최의 姑氏인 엘리사벳 트피르스데르 니-최이였섯다. 나는」 니-최 姑氏의 親切하고 仔細한 案内로 그 由□한 니-최의 手迹과 筆跡의 大部分을 求景하였섯다. 니-최를 冊으로만 읽고 알엇든 나는 그의 手跡을 目睹하매 다시금 그에게 對한 尊敬心과 아울러 그의 偉大性을 強하게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엇다. 案内하다-맞치인 니-최의 누이는 「니-최가 朝鮮에도 알려졌습니까? 당신이 朝鮮으로 돌아가거든 니-최를 紹介해줄 줄 밋습니다.」하며, 나의 意向을 물을 때 나는 卽時 「힘 잇는데까지 해보지요」 하엿스나, 그 누이의 所願대로 넉넉하고 充分한 紹介가 되엿슬는지 疑問이다.